

와이키키한인교회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사역자:

담임목사: 강성호 | 예배사역자: 김토니

와이키키 교회 '임마누엘' 소식

환영: 오늘 예배에 함께 동참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헬로십: 다음 주일(2/27) 예배 후 함께 식사합니다. 마음에 준비하시고 함께 동참할 수 있기 바랍니다.

담임목사: 오는 주간, 미주남침례교 국내선교부, 지원하는 교회개척 미션 모임 (Anheim, CA)에 참석함을 알립니다.

행복학교: 1/18-4/19 (12 주) 화요일 오전 10 시에 주제 "공감의 말하기" 행복 학교 - 이번 화요일은 쉽니다.

복음방송: 화요일(4:30 pm) "하나님과 함께 걷기" (김토니 전도사); 목요일(9:50 am) "시편으로 보는 복된 가정" (강성호 목사) - 영적 회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모임: 매주 금요일 7 시

성경공부: 목요일 오후 7:30 줌 모임이 있습니다.

한주간 읽을 성경말씀:

다음 주일설교 (2/27): 모세에게 주신 비전

목요줌모임 (2/22): 신앙의 기본 진리

금요 찬양과 기도 (2/25): 이번 금요찬양은 쉽니다.

주일설교 본문:

창 32:24-32 험악한 세월, 함께 하신 비전

창 37:7-11 고난 속에 이루어진 비전

출 3:1-22 모세의 꿈

민 14:6-9, 27:18, 수 6:16 여호수아의 꿈

와이키키한인교회



Waikiki Korean Church, SBC

Waikikikoreanchurch.com

하나님 형상 회복!

2022 년 2 월 20 일

주일예배 오후 1 시

예배 초청

찬양/기도: 김토니 찬양사역자

성경봉독: 창 45:5-8, 히 11:22

고난이 어떻게 기회가 될까?

요셉 통해 보는 하나님 비전

강성호 목사

봉헌기도

교회소식

축도

핵심구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출45:5)



주일예배 동영상은 유튜브에서 와이키키한인 교회를 찾거나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주소: 424 Kuamoo St. Honolulu, HI 96815; 연락처 808-947-1569

고난이 어떻게 기회가 될까? 요셉 통해 보는 하나님 비전 창37:5-11, 히11:22, 창45:7-8

Genesis 45:5 (KRV)

⁵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⁶이 땅에 이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오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찌라 ⁷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⁸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버지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요셉의 인생은 온갖 고난과 역경으로 뒤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경은 시간이 지난 큰 의미를 갖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아 부러운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의 인생이 꼬였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형제들의 미움을 자극해서 인생의 밑바닥을 치게 됩니다. 철없는 나이에 시기에 가득 한 형제를 불러 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창 37:7). 그러니 형제들이 화가 나서 대꾸합니다.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이것이 화근이 되어 죽음까지 갈 뻔했으나 형제들은 이집트로 행했던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 넘깁니다.



사랑 받는 것이 무슨 죄인가요?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태생부터 관심을 갖고 편애합니다.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노년에 낳아준 첫 아들입니다. 그리고 라헬은 안타깝게도 동생 베냐민을 낳은 후 세상을 일찍이 떠납니다. 엄마 없는 아들, 사랑했던 아내의 아들이었기에 야곱은 더 사랑했지만 배다른 형제들의 시기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요셉의 역경은 여기부터 시작됩니다.

이후 요셉은 이집트에 들어가 바로 왕의 시위대장에게 팔립니다. 갑작스레 떨어진 신분으로 죽을 것 같은 역경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를 통해 들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준 꿈을 잊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고난으로 인해 요셉은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웠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형제들을 만났을 때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창 45:5,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말소서'라고 말한 것을 보면 팔린 것에 대한 쓴 뿌리를 가슴에 품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고난은 시위대장의 아내의 유혹에서 또 다시 시작됩니다. 뿌리치고 달아났지만 억울한 누명을 씌어 한번 들어 가면 나올 수 없는 감옥으로 던져집니다. 그때 만났던 사람에게 '옥에 갇힐 일을 행치 않았다'는 말을 하는 것을 보아 억울함으로 밤을 지새울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짓 누르는 마음의 억울함과 우울함, 어둡고 그늘진 지하 감옥 속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 마음에 어린 시절 보았던 알 수 없는 꿈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또 그로 인해 사람들이 복을 누렸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위대장 집에서 가정의 총무 일을 맡아 보게 되었고 심지어는 지하감옥에 갇혔을 때도 죄수들을 돌보며 총무 일을 맡게 됩니다. 인생의 어두움이 짙어질 수록 그는 사람들에게 인정 받으며 그곳에서 빛을 발합니다. 끝내 그는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지혜를 보였고 그로 인해 이집트 총리가 되어 끝내 흉년으로 고생하며 떠 돌아 다녀야 했던 형제들 까지 용납하고 구원하는 일을 해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요셉에게 역경이 없었다면, 그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마음에 품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중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지 않았다면, 그에게 가족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역경 속에 비전을 품어 주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